

< 우리 회사의 고민이 훈련과제가 된다? 맞춤 개발된 훈련으로 기업 고민 해소! >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계적 현장훈련

- 현장 실전 문제해결과 실무 중심 직무역량 강화로 지속 성장의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별 기업이 가진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을 훈련과제로 활용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현장훈련(S-OJT*)을 실시하고 있다.

* 체계적 현장훈련(S-OJT): 숙련된 자가 재직근로자에게 사업 현장 또는 사업 현장과 유사한 장소에서 특정한 과업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계획된 훈련
공단은 단순 이론전달식 교육 대신 현장문제 해결식 교육인 PBL(Project/Problem Based Learning)방식 훈련을 2025년에 도입했다.

훈련에 참여한 기업은 1,940개의 과정을 통해 3,020건의 고민을 해소(1개의 과정에서 다수의 성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1,940개의 훈련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업 내 기술문제 해결(1,515건, 50.1%) △불필요 공정개선 등 공정 최적화(676건, 22.4%) △제품의 불량률 감소(476건, 15.8%) △노하우가 집약된 기술 매뉴얼 개발(154건, 5.1%) △기타(199건, 6.6%)의 성과 달성을 통해 고민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섬유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주)에이원은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 일일 생산량이 60% 증가하고, 생산시간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공정 최적화와 불량률이 20%p 감소하여 생산 전반의 원가 절감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주)에이원의 훈련 담당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과 직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기업도 직원들에게 많은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밀금형을 제작하는 (주)주영정공은 금형 제작 설계프로그램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여 작업 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업 내부에 훈련 문화가 확산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주)주영정공의 훈련 담당자는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이후로 근로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자리잡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당 훈련사업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를 활용하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과정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2026년 약 600개소의 기업에 47억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업무성으로 직결되는 체계적 현장훈련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기업 우수사례 2건.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책임자	부장	박성희	(052-714-8271)
		담당자	과장	김동언	(052-714-8277)



[붙임] 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기업 우수사례 2건

우수사례 1

(주)에이원은 섬유에 사용되는 친환경 인쇄잉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체계적 현장훈련에 참여했다. 해외 영업부에서 실시한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실리콘 유광 슬립 전사 프로세스 개발'을 훈련과제로 선정하고 세부 훈련과정별 목표를 수립했다. 내·외부전문가와 교육 과정 개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훈련과정의 특성 및 제조공정상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ChatGPT, DeepSeek 등 AI를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했다. 실리콘 유광 슬립 특수 잉크를 배합하고 인쇄적성을 시험하는 과정, 품질 개선을 위해 시험 인쇄 및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 개발한 전사지를 실리콘 유광슬립 특수잉크로 배면전사 인쇄*하는 실험 과정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 인쇄물 뒷면에 다른 인쇄물의 도안이 전사되어 앞면에 비친 형태로 인쇄되는 방식, 티셔츠, 가방, 모자 등 다양한 섬유류에 적용됨.

위 훈련을 통해 일일생산량 증가(2,500장 → 4,000장), 불량률 감소(30% → 10%), 공정 단축(12단계 → 10단계), 생산시간 단축(8시간 → 5시간) 등 원가 절감을 실현했다.

우수사례 2

(주)주영정공은 자동차 및 생활가전용 정밀 프레스금형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체계적 현장훈련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도면해석 오류, 3D모델링 지연, 협업 문제로 연간 약 6,600시간, 2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 도출 △원인 분석 △과제기술서 작성 △과정 개발의 단계로 훈련 과정을 설계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했다. 훈련은 실제 생산 공정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했다. 도면 해독, 부품 모델링, 공정 조합, 2D·3D 도면 생성까지 금형 제작의 전과정을 실제 장비와 데이터를 활용해 수행했고, 공정의 오류를 훈련참여자가 직접 수정, 공정 간 협업 방식을 함께 점검하며 개선했다. 외부강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천한 CAD/CAM 분야의 전문가, 내부 강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엔지니어로 구성하여 훈련 과정 지도를 맡았다. 훈련장은 현장문제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반복하는 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현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단발성 교육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학습문화를 정착시켰다.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해 정량적 성과로 2억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3D 모델링 오류 수정 및 중복 작업 감소했고, 불량률 감소와 납기 단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